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23-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3. 1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1폭	국유 (국립고궁박물관)
2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3	수능엄경의해 권9~15 (首楞嚴經義海 卷9~15)	7권 1책	허*
4	이항복 해서 천자문 (李恒福 楷書 千字文)	1책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예고】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87.2cm×72.4cm, 화면 91.4×62.5cm
- 재 질 : 비단에 수묵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531년 경
- 사 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독서당계회도’는 조선 중종대인 1516년부터 1530년까지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했던 현직 관료들의 모임을 기념하여 그린 작품이다. 사가독서는 젊고 유능한 문신을 선발해 휴가를 주어 공무 대신 학문에 전념하도록 했던 인재양성책으로 세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 존폐를 거듭하다 중종에 의해 재개되었다. 계회(契會)는 하단 좌목(座目)에 언급된 인물들의 관직을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문집에서 확인 결과 1531년(중종 26) 경에 열린 것으로 여겨지며, 이 그림은 당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폭의 족자로 장황되어 있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 계회도의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화면 맨 위에는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적혀 있으며, 화면 가운데 그림은 두모포(豆毛浦) 일대의 자연 풍광과 사가독서의 공간이었던 독서당, 사가독서했던 주인공들이 한강에서 뱃놀이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먹 위주로 하여 묘사한 산수는 단선점준, 수지법 등에서 안견파(安堅派) 화풍을 잘 보여주며 멀리 원산은 짙은 청색으로 표현했는데 석청 안료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화면 아래 좌목에는 계회 참석자의 명단이 보이는데 장옥(張玉), 홍서주(洪叙疇), 허자(許磁), 임백령(林百齡), 송인수(宋麟壽), 송순(宋純), 주세붕(周世鵬), 이림(李霖), 허항(許沆), 신석간(申石澗), 엄흔(嚴昕), 최연(崔演)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의 호(號), 이름, 자(字), 본관, 생년, 사가독서 연도, 사미시 입격 연도, 과거 급제 연도, 계회 참석 당시의 품계와 관직명, 부친이나 형제 등의 인적사항 등이 해서체로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현존 독서당계회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 작품으로 제작연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성행한 관념산수화와는 다르게 한강 주변을 그린 실경산수화의 시원 양식을 유추케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2000. 3. 24. 지정)
- 명 칭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청용리), 청룡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0cm, 어깨 폭 52.0cm, 무릎 폭 42.0cm
- 재 질 : 청동에 도금
- 형 식 : 보살좌상
- 조성연대 : 고려 후기(14세기)
- 사 유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14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통견을 입었으며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관과 대좌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새로 만든 것이며,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 각각 검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이 보살좌상은 가름한 얼굴에 복스럽게 표현된 얼굴 표정, 보계와 귀걸이, 고개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 등의 표현에서 고려 후기 전통양식으로 이해되는 일군의 보살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동시에 다소 좁고 왜소한 어깨, 긴 허리, 높은 무릎 등의 표현은 고려 후기 전통양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00년을 전후하여 많이 등장하는 원·명대 라마불교양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을 취하고 있어 과도기 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양식적 유형의 보살좌상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데 반해 드물게 금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보살좌상이 언제 제작되어 언제부터 청룡사에서 모셔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에 수리기록이 보이므로 최소한 1722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청룡사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지속적인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개금 수리하여 오랜 기간 청룡사에 봉안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점에서 그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 소유자(관리자) : 허*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 량 : 7권 1책
- 규 격 : 35.0×25.1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2년(세조 8)

○ 사 유

허* 소장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중국 당나라 때 인도 승려 반라밀제(般刺密諦: 極量)가 중국으로 전래하여 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을 중국 남송의 함휘(咸輝, ?~?)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 중 권9~15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수능엄경의해 권9~15’에 수록된 내용은 『능엄경』 전체 10권 중에서 권3~5에 나타나는 『능엄경』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음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에 관한 것이다.

지정예고 대상 허* 소장본의 각 권말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고 적힌 간기(刊記)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조성하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표제(表題)는 ‘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라 묵서되어 있는데 ‘종구지십오(從九至十五)’라는 수록 권차가 함께 묵서되어 있다. 인쇄 상태가 뛰어난 편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수능엄경의해』의 경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수능엄경의해』 30권 중 인경본(印經本)도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으며 결락 장이 없는 7권 1책으로 전 30권 판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권수라는 점에서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조선 세조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수능엄경의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있게 해준다는 점, 조선 전기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 때 간행된 『수능엄경의해』를 5년 뒤인 세조 13년(1467) 8월 유구국의 국왕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중국·일본 삼국의 불교문화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책

○ 규 격 : 39.0×24.0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 제작자 : 이항복(李恒福)

○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1607년(선조 40) 이항복(1556~1618)이 52세의 나이에 장남 이성남(李星男, 1578~1642)의 장자로 여섯 살이었던 손자 이시중(李時中, 1602~1657)의 교육을 위해 직접 써서 내려준 천자문이다.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책으로 우리 나라에 언제 전래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음(音)과 훈(訓)을 달아 한자를 배우는 입문서로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었다.

이 천자문은 총 126면의 분량으로, 본문 125면과 발문 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합지(合紙)로 만들고 밀랍을 칠했으며, 표제(表題)는 ‘천자문(千字文)’이라 묵서되어 있다. 앞 면지 이면에 2개의 백문방인(白文方印) ‘청헌(聽軒)’과 ‘월성세가(月城世家)’가 찍혀 있는데, ‘청헌’은 이항복의 6대 종손인 이경일(李敬一, 1734~1820)의 호이다. 본문은 한 면에 2행으로 행마다 4자씩 8자를 125면에 천 글자를 썼는데 서체는 해서로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띠고 있으며 행서 필의도 섞여 있고 이체자(異體字)도 섞여 있다. 각 글자 아래에는 한글로 음훈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서사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끝에는 “정미년(1607년) 이른 여름(음력 4월) 손자 이시중에게 써 준다. 오십 노인이 땀을 뿌리고 고생을 참으며 썼으니 골짜기에 던져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마라[丁未首夏, 書與孫兒時中. 五十老人, 揮汗忍苦, 毋擲牝以孤是意]”고 이항복이 행초서로 쓴 발문(跋文)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항복이 후손 교육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전하는 천자문은 목판본과 필사본 두 형태가 있는데, ‘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가장 이른 시기의 육필 천자문이자 자경이 8cm 정도로 가장 크게 쓴 육필 천자문으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한자 밑의 한글 음훈은 이 시기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 활발하게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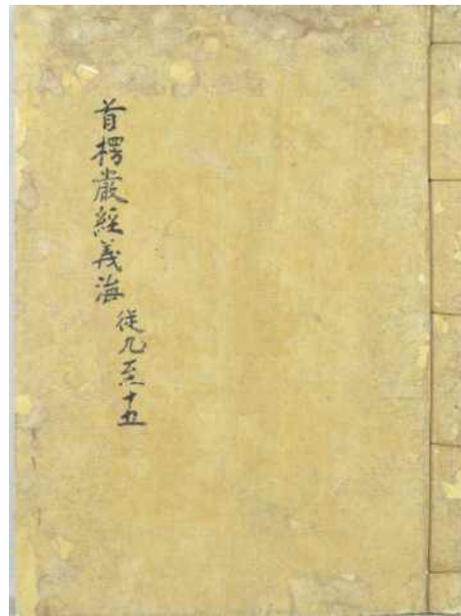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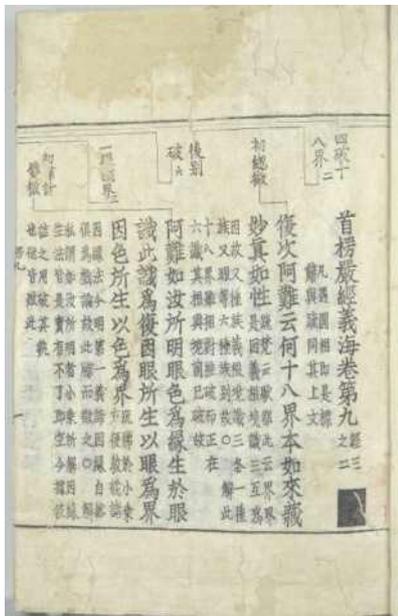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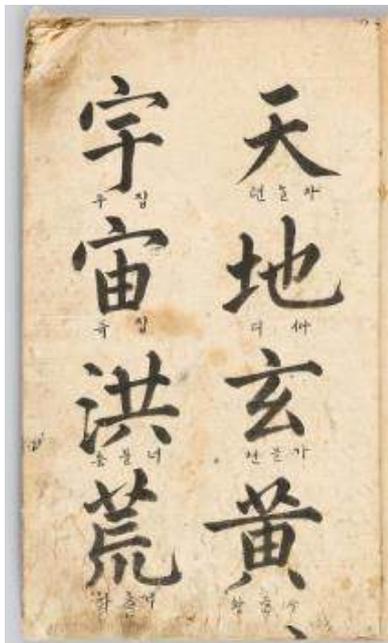
<독서당계회도>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능엄경의해 권9~15>



<이항복 해서 천자문>